

기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 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

행복 또는 불행.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누구든지 행복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현재의 삶이 뜻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는 것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욕구를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 주어진 자원을 초과하는 욕구가 있다면 행복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이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는 혼합돼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건강한 육체로 맹렬히 활동 중인 사람에게 무릎 통증이 엄습한다면 어떻게 될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그 도가 더 강하다고 한다. 발생률은 여성이 더 높은데도. 왜일까. 여성들은 참을성이 더 강한 반면에 사회적 활동은 더 적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남성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비율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 환자는 평생도록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삶 자체가 고통일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행복과 불행은 마음 하나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극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적절하게 전환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는 두 가지 기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이 중요하다. 육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육체도 정신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인간 내·외부를 관할하는 메카니즘(mechanism)은 역시 정신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야 극기할 수 있기에. 비록 무릎 통증 악화로 행동반경이 좁아질지라도 정신력이 강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 하지 않은가. 실제로 무릎 통증 악화로 힘

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처음에는 그로 인해 신체적 활동은 물론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주어진 악영향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무릎이 더욱 망가져 걷기가 어렵더라도 하리는 건강하기에 휠체어를 사용해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향유하기도 한다.

척수손상으로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약간의 기동력만 있다면 근거리의 도보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세상이 환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운동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나마 더 열심히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또는 탈 때도,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도 주변의 벽 등을 비롯한 의지할 곳을 찾아 손으로 기댄 채 아픈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된 반복으로 나중에는 통증마저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환해지고 상황도 반복되면서 피어오르는 삶의 활기가 곧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 그대들의 파행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혹시 배부른 돼지들의 이유답지 않은 욕구 풀이는 아니던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들의 수준은 그대들의 뒷모습까지도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선은 이미 끝났다. 승자는 패자를 안아주고 패자는 승자를 지지해주길 바란다.

자신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레야 영원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밝은 태양이.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응급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안민아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동안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47건으로,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주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는 응급처치의 지연, 구급차의 지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

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 진료과 유무,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한적이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음력 5월 18일)



48년생 고향집 엄마맛배우고 따뜻하다.60년생 씨 뿌리는 농부 풍년을 기대하자.72년생 아쉬운 부푼에 얼굴이 뜨거워진다.84년생 거래나 흥청 비싼 값을 불러보자.96년생 땅에서 보물 찾듯 고가를 숙여보자.



51년생 모두의 반대에도 처음을 지켜내자.63년생 행운의 기운이 그득하게 채워진다.75년생 인연이 아니면 냉정히 돌아보자.87년생 뒤늦은 합류 부지런히 따라가자.99년생 무릎 꿇는 용기 많은 것을 얻어낸다.



54년생 자신했던 건강 돌보고 아껴내자.66년생 관심과 예의로 손님맞이 해보자.78년생 스카치는 생각 행동으로 옮겨보자.90년생 비단옷 꽃가마 화려함이 더해진다.02년생 거절하지 못했던 후회 남겨놓는다.



57년생 한국 부럽지 않은 호시를 누리보자.69년생 여자기가 공간부자 가되어간다.81년생 지리검작업상백기 들어 행복하자.93년생 냉정한 승부사 이기려애를 쓰자.05년생 근사한 미루리 박수는 덤으로온다.



49년생 겹치는 경사 총사육자 절로 난다.61년생 기쁘치고 배우고 자식을 나눠보자.73년생 깜짝 도움 우렁차시가 대내린다.85년생 시름을 털어내고 회합을 다시 하자.97년생 물과 기름이 어도의 기뻐할해보자.



52년생 늦게은 사랑 애뜻함이 더해진다.64년생 이 또한 지나가리 무심히 흘려내자.76년생 흥분하 했던 기대 상까지 받아낸다.88년생 쫓돌렸던 실력 다시 어유가 온다.00년생 잘하려 하지마라. 초심을 깨내보자.



55년생 좋다 하는 곳으로 나들이를 해보자.67년생 섣부른 애정 표현상치를 크게 한다.79년생 소중함 경험 나침반이 되어준다.91년생 이차하는 실언 주위 담지 못한다.03년생 화려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58년생 적당히 포기하고 욕심을 비워내자.70년생 시간을 붙잡고 싶은 흥에 취해보자.82년생 눈으로 보여져도 의심을 가져보자.94년생 기간히 안아서 주인행세 해보자.06년생 반복되는 과정 지루함과 맞서보자.



50년생 떠돌썩한 여담 주인공이 되어보자.62년생 길고도 험했던 과정 끝이 보여진다.74년생 글 읽는 소리로 부족함을 채워보자.86년생 위기에서 기회로 반전에 성공한다.98년생 밀려진 역할을 자금심을 더해보자.



53년생 차해진 조건에서 기쁨을 찾아내자.65년생 깜짝 선물미 달콤함을 더해준다.77년생 공격이 아닌 수비 뒷걸음쳐야 한다.89년생 오랜만 등장으로 주목 받아내자.01년생 칭찬을 넘어 극찬 구름을 받아보자.



56년생 몇 날 며칠 이어질 전치를 벌여보자.68년생 내뻗지 않은 차선으로 만족하자.80년생 열어졌던 마음의 가리가 좁혀진다.92년생 진자였던 노력이 세상에 알려진다.04년생 날을 뛰는 약속에 미리 대비하자.



47년생 모르는 게 약 금함을 찾아내자.59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욕석을 가려내자.71년생 두드리면 열린다. 신념만 지켜내자.83년생 초라한 변명보다 매를 맞아보자.95년생 남의 힘을 빌려야 원하는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